

광주시,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대폭 줄인다

계절관리제·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전기차 지원 등 저공해차 보급 확대

광주시가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를 대폭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3 $\mu\text{g}/\text{m}^3$ (2019년 기준)에서 16 $\mu\text{g}/\text{m}^3$ 로 줄이기 위한 ‘광주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8일 비대면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7일 최종보고회를 개

최하고 최종안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에는 미세먼지 등 7종의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원인 산업·배출시설, 수송·이동오염원, 생활·농업, 예측·진단·모니터링, 시민보호·참여분야 100여개 세부사업을 반영했다. 시는 가장 먼저 초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도로 이동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위한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하는 12~3월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평소보다 강화한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을 집중 감시하고, 미

세먼지 회파·저감시설을 지원하는 등 6개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 도로청소강화,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 특히 미세먼지 집적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회파·저감시설 설치하고, 33개소의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해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차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집중 보급에 나선다. 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3248대, 전기이륜차 419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는 전기자동

차 1200대(승용 720대, 화물차 480대)와 전기가륜차 2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보급계획을 공고했으며,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액은 전기승용차는 대당 534만원에서 1300만원이고, 전기화물차는 차량규모에 따라 900만원에서 2600만원이다. 전기이륜차는 유형 규모별로 120만원에서 33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전일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광주지역 관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단체 등이고, 출고 순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클린로드 시스템 통한 대기질 개선에서 집중한다. 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문화전당 및 급남로 구간에 설치된 클린로드

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가동한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지하철 역사에서 유출돼 버려지는 깨끗한 지하수를 활용해 봄·가을철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여름철이면 온도를 낮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도로 정화시스템이다.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살수 노즐을 통해 지면에 지하수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상시 1~3회, 고농도 미세먼지 및 폭염 시에는 하루 최대 4회까지 가동한다. 나해천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2024년까지 광주시 대기환경 개선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없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무인저속청소차 실증 착수식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실증 착수식이 17일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관계자로부터 무인 청소차량의 특징 등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

99개 기관·단체 138개 프로그램 운영 학술 용역 착수...손상 빅데이터 분석

광주시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해 최근 학술용역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WHO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1989년부터 시작한 지역사회 안전 증진사업이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모든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웨덴에 있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공인 후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재공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주시는 2016년 4월28일 국내 11번째, 세계 365번째로 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았으며, 다양한 안전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99개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손상 사망률 감소를 위한 138개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재해·재난, 폭력예방, 자살예방, 학교안

전, 노인낙상, 도로교통사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6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198차례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또 안전문화 3·3·3시민운동 등 안전증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광주시 총사망자 대비 사고손상 사망자는 9.1%, 2010년 대비 4.2%, 2015년 대비 0.7% 감소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재난안전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성과를 거뒀다. 올해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5년차를 맞은 광주시는 재공인을 위해 지난 15일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맡겼다. 용역에서는 시민들의 손상현황과 추이 분석, 7가지 공인기준에 적합한 안전사업 성과 평가 등 손상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손상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공인심사자료를 작성한다. 손상감시체계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 다치는지 손상을 일으키는 모든 정보를 파악해 신뢰성 있는 지표를 산출하고 독자적인 성과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광주시는 이러한 내용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ISCCC에 공인 신청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국 최초 광주서 ‘시속 5km’ 무인 특장차 시범 주행

평동역·우치공원 등 4곳

거리 청소, 폐기물 수거 등을 하는 무인 차량이 광주 도심에 누빈다. 전국 첫 사례다. 광주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 자유 특구 사업 실증 착수식을 열었다. 국내 첫 무인 차량 자율 주행의 본격적인 실증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이날부터 평동역, 산업단지용 폐기물 수거, 주거단지용 폐기물 수거, 공공정보 수집 등 4가지 무인 특장차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다만 운행일은 비정기적이며, 도로와 인력 배치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행한다. 구간은 평동산단 내 평동역 일원(2.1km), 수안지구 내 성덕 공원(1.1km)과 고래실 공원 일원(2.3km), 우치공원(1.3km)이다. 시속 5~7km의 저속으로 교통량이 적은 오전 10~12시, 오후 2~4시에 운행한다. 우치공원 주행 시간은 개장을 피해 오전 7~9시, 오후 6~8시다. 관제센터에서는 무인 특장차 주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원격으로 제어하고 수집된 영상 정보는 기관·기업에 제공한다.

광주시는 2019년 12월 평동산단, 하남·진곡 산단, 수안지구, 우치공원, 빛그린 산단, 송정공원 등 7개 권역 16.79km를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받았다. 특구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무인 저속 특장차 임시운행과 도로 주행 허가, 도시공원 출입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환경 미화 작업 능력 향상, 자율 주행 기술 개발과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가 미래형 자동차 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굴 폐각 어장환경 개선 활용...부산물 자원화 기대

해양수산부가 최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하면서 전남도가 앞으로 조개류 폐각(껍데기)을 어장환경 개선재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주요 개정안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현행 제18조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 폐기물이 확대될 경우 조개류 폐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양식어업·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조개류 폐각 등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

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규정돼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제한적이며 폐각을 운반 및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전남에서만 연간 7만6000t 규모의 폐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패화석 비료, 생석회, 시멘트 원료 등으로 55%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45%는 작업장 적치 등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굴, 고막 등 조개류 폐각을 패류양식 어장 해양환경개선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장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법’ 등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했으며, 이같은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2021 신간

2020년 신간!

인기리 판매중

최신간 앙장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지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 왜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갑을 맞아 떠난 한중일의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정의 종전 7주갑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랑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